

‘돈벌이 욕심’에 병원 돌며 입·퇴원 반복

보험범죄 뿌리뽑자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 천태만상

동네주민 21명 40억 쟁기고 병원 운영자와 싸고 조작도

죄의식 결여 속 경미한 처벌 광주·전남 올해 680명 적발

#1. 지난 11월 보험사기로 수십억원을 쟁긴 한 동네 주민들이 무더기로 광양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특정 병원에 입원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낸 최모(여·40)씨 등 한 동네 주민 21명을 검거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광주·전남 49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27개 보험사

로부터 모두 4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 ‘공짜 성형수술’ 욕심에 보험사기에 빠진 주부와 대학생도 있다. 지난 9월 광주서부경찰에 붙잡힌 140여명의 주부 등은 성형수술이나 피부 시술을 받은 뒤 병원 운영자(33) 등과 짜고 등산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운영자는 물론, 전·현직 보험설계사가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지난 10월 광산경찰에 붙잡힌 김모(63)·최모(여·44)씨 부부는 보험사기에 미성년자 자녀 3명을 동원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이들 부부는 ‘연기만 잘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8년 동안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무려 8억3500만원을 타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가 하면 병원 진료 과정에서는 거짓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에도 ‘죄의식 결여’와 ‘경미한 처벌’로 인해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 기관의 눈을 피해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보험사기에 중독되면 혈연과 지연을 따지지 않고 범죄에 끌어들이는 등 모방범죄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23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들어 지난 11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는 모두 307건(광주 69건·전남 238건)으로 피의자는 모두 680명(광주 323명·전남 357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112건(575명)이 적발됐다.

최근 보험사기는 점차 지능화, 조직화, 흉포화, 일반화,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 직장인, 주부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게 점차 일반화되는 경향이다. 이 때문에 평범한 주부나 학생들도 한 순간에 ‘보험사기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해 해커와 피해자가 공

모하는 속칭 ‘가피’도 늘어나고 있고, 허위 입원을 들이지 않기 위해 본인의 휴대전화는 병원에 두고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또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 전문브로커와 조직폭력배들까지 개입된 조직화된 보험사기 조직도 생겨났으며, 해외에 나가고의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도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고액의 사망보험을 타내기 위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유형별로는 ▲허의 진단 및 입원, 피해자 끼워넣기,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 등 허위사고형 ▲자해, 살인, 고의 사고, 방화 등 고의사고형 ▲치료비 과대청구, 수리비 과대청구 등 피해과장형 등이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범죄로 인해 우리나라 1가구당 20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고 있다”며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이들의 보험거래를 제한하고, 분산된 보험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동 조사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kki@kwangju.co.kr

누리예산 해결 나선 전국교육감들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 면담 요청”

정부와 국회에 관심 촉구

광주·전남 교육감을 비롯, 전국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놓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행 위기에 놓인 누리과정 사태가 해결될 지 주목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올해가 가기 전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합니다’라는 성명을 내

고 “정부와 대화하고 국회를 설득하면서 목이 아파라 호소도 했다”면서 “하지만 오늘이 시한까지 이렇다할 성과없이 또 한해를 마감해야 하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이 정말 어렵다. 오죽했으면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서, 교육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1인 시위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겠느냐”고 지적한 뒤 “정부와 국회는 보육 대란의 책임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전남 출신 3명 경무관 승진

경찰청은 차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에 이어 23일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를 발표했다.

광주·전남 경찰청은 아쉽게 ‘경찰의 별’인 경무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출신은 총 18명의 승진자 중 3명이 포함됐다.

김재규(52)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과 장하연(50) 경찰청 정보4과장, 최관호(49) 경찰청 감사관이 주인공이다.

김 홍보관은 고흥 출신으로 순천교과 경찰대 행정학과(27),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2007년 총경으로 승진해

전남청 경비교통과장·보안과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신안 출신의 장 과장은 목포문태고과 경찰대학(5기),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곡성시장, 광주청 정보과장, 경찰청 정보과 정보2·3·5과장을 지낸 정보통이다.

최 감사관은 곡성 출신으로 광주승일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1년 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투신해 광주청 경비교통과장, 무안시장, 인천공항경찰대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양경제청 본부장 항소 기각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종재)는 23일 순천 신대배후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건설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A(56)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광양경제청 재직 당시 신대배

후단지 개발시행사 측으로부터 업무편의 대가 등의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3500만원, 추징금 164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고, 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뇌물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술취해 부부싸움하다 음주운전 들통나고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 수완지구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부부싸움을 벌이던 40대 부부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화를 추스르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다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나란히 경찰서행.

○…2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회사원 A(44)씨는 이날 새벽 1시40분께 수완동 한 아파트 앞에서 아내 B(41)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여자(아내)를 음주측정하라”고 고함친 뒤 실제 음주측정이 이뤄지려고 하자 돌연, 경찰관을 밀쳐내는 등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것.

○…아내 B씨도 이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면허취소)인 만취 상태로 운전한 한 사실이 들통났는데, 경찰 조사에서도 부부는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와서 못살겠다”, “아내 잔소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며 한동안 옥신각신.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안개비에 갇혀 뿌연 광주 도심



23일 약하게 내린 비로 광주시 남구 사직동 전망타워에서 바라본 광주 도심이 안개에 갇혀 있는 것처럼 뿌연다. 기상청은 24일에는 극히 작은 물방울이 대기 중에 떠 있는 박무나 연무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 ‘얼차려 물의’ 교수 직위해제

대학생 5명은 유기정학

전남대가 예술대 음악학과 ‘얼차려’ 사태와 관련, 학교 음악학과 A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관련 학생들에 대해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전남대는 예술대 음악학과 선·후배 간 ‘얼차려’ 사건과 관련,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에 대한 지도·관리 책임을 물어 A교수를 최근 직위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대는 또 해당 학생 5명에게도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15일~20일간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의 경우 신입생들에 대한 군대식 신고식 및 단체 얼차려 문제가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전남대는 진상 조사를 거쳐 오케스트라 연습 과정에서 일부 선배들이 연주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후배들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얼차려를 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p>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p> <p>(7층) 건물 (사우나 건물)</p> <p>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p> <p>☆ 월 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p> <p>(보 1억5천만, 용 7억)</p> <p>매가 15억 5천</p> <p>010-7384-7800</p>	<p>신축 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p> <p>(4층) 신축원룸</p> <p>1층 (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p> <p>4면 올 대리석 시공 신축 원룸 / 내부 깨끗 / 풀오피스</p> <p>(보 4천만, 월 500만, 용 1억2천만)</p> <p>매가 6억 7천만</p> <p>①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 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②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20만) → 매가 7억8천만 ③ 용봉지구 원룸 (미래대 A.P.T 코너) 룸-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p> <p>010-6670-9800</p>	<p>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투자) (매월 월세로 연금대비 하세요~!)</p> <p>①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주택) (토 81평, 건 30평) 압록역,성진강 부근 주택 추천 → 매가 5천만 ②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올수리 (용5천(보1천월60만) → 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옆 (용4천(보5백,월 42만) → 매가 7천5백만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용5천(보5백,월50만) → 매가 8천5백만 ⑤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옆 (용2천(보3백,월33만) → 매가 5천만 ⑥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천역연출구 3분 (용1천(보2백,월32만) → 매가 3천8백만 ⑦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1층(40평) (보8백,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⑧ 광양 광영동 상아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월25만) → 매가 3천5백만 ⑨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보1천,월70만) → 매가 1억3천만 ⑩ 북구 중흥동 전대 정문/후문 2분거리 (상가원룸) 1층 (상가22) 2층~3층 (원룸6개,투룸2개) 4층 (주택) (보 4천, 월 520만) → 매가 6억8천만 ⑪ 커피숍 임대 (25평,1층 도로점) (시설비 4천만, 보 2천만 월 150만) → 매가 1억3천만</p> <p>010-6834-44800 / 010-6832-9700</p>	<p>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p> <p>1. 북구 오룡동 (토 500평,건 900평) ※ 1층 (상가) 2층~7층(오피스텔 룸 56개) 8층 (41평,주택및사무실) 삼성전자 정문 앞, 공단및교육시설 단지 감정가 35억 → 최저가 19억8천만</p> <p>2. 남구 주월동 (토 206평,건 64.5평) ※ 남구정 부근 도로점 코너자리 감정가 16억8천 → 최저가 11억8천만</p> <p>3. 광산구 박호동 (토300평,건150평) ※ 단층 영업소 식당, 황용강 부근, 도로점 감정가 4억 6천 → 최저가 4억 6천</p> <p>4. 서구 마복동 (토 342평,건 84평) (주유소) ※ 광주아울렛 뒷편, 투자적합 감정가 9억9천 → 최저가 6억9천</p> <p>5. 북구 중흥동 (토 84평,건 385평) (의료시설) ※ 광주역 남동쪽 부근 도로점, 한방병원 시설완비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만</p> <p>6. 광산구 서봉동 (토 40평,건 44평) ※ 송산 유원지 부근, 황용강 부근, 도로점 감정가 7천 2백 → 최저가 7천2백</p> <p>★ 직원 구함 ★ 부동산,경매 직원 구합니다 경매 입찰부터 매매,개발기획까지 함께 배우실분 모집합니다.</p>	<p>경매교육</p> <p>바로실천 교육등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p> <p>경매기본교육부터 실천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p> <p>경매 물건 추천</p> <p>1. 남구 병림동 (토 207평,건333평) (근린시설) 감정가 9억9천 → 최저가 6억9천 2. 동구 수기동 (토130평,건320평) 감정가 10억 → 최저가 6억 3.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 (토12평,건90평) 감정가 6억9천 → 최저가 3억5천</p> <p>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p>
---	---	---	--	---